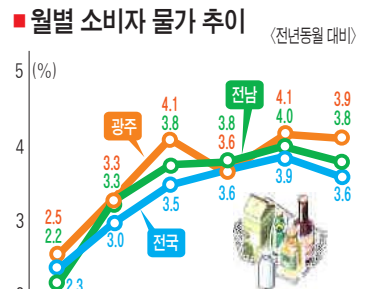


소비자 물가 꺾일 줄 모른다

2월 광주 3.9%, 전남 3.8% ↑ 전국 최고
교육비·생필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 대기
라면값까지 반영면 체감물가 최악 수준

최근 1년간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각종 서비스요금 인상 등이 잇따르면서 광주·전남의 소비자물가뿐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 상승률이 2월 까지 너 달째 고평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3월에는 대학등록금과 학원비 인상을 앞둔 가운데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의 가격도 줄줄이 오르거나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3월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로, 지난해 2월에 비해 3.9%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3.6%)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울산, 강원, 충북(이상 4.0%) 등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남도 전년 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이 3.8%에 달하면서 광주와 함께 6개월째 3% 이상의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장바구니' 물가로 통하는 생활물가지수가 지난해 2월에 비해 각각 5.0%, 5.4% 치솟았다. 이같은 생활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1월 5%를 넘어선 이후 너 달째 5%대를 유지한 것이어서 서민들의 물가에 대한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처럼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은 원유와 금,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강세로 인해 공업제품 및 각종 서비스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의 경우 밀가루와 금반지가 지난해 2월에 비해 각각 61.9%, 42.9%

나 뛰었다. 또 경유와 LPG가격이 1년 새 각각 27.6%, 24.6% 올라 곡물과 금, 유가 등 원자재값 급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문제는 이같은 원자재값 급등이 공공 및 개인서비스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는 쓰레기봉투가 1년새 56.5% 오른 것을 비롯, ▲전철료(19.3%) ▲국립대납입금(10.2%) ▲도시가스(9.6%) ▲자동차학원비(26.5%) ▲대입학원비(21.7%) 등으로 전반적인 물가가 크게 올랐다.
여기에 이 달부터는 대학등록금과 학원비 등이 잇따라 오를 예정인 데다 지난달 20일 가격이 오른 라면값까지 물가지수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김정민(왼쪽) 광주지방국세청장이 3월 제 4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광주국세청 제공>

모범 납세자 70명 등 표창

납세의 날 맞아... 김상열 호반건설 대표 철탐산업훈장

김상열(주)호반건설 대표가 3월 제 4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철탐산업훈장을 받았다. 또 신삼수(주)연호엔스 대표가 산업포장, 임호섭(주)창해에탄을 대표와 김창구 영동기업 대표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정민)은 이날 2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지역 경제단체장, 모범납세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갖고 이들 정부포상자 외에 성실한 납세와 세정협조에 공로가 큰 70명과 2개의 우수기관에 대해 표창했다.
모범납세자로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2년간, 지방국세청장 이하 수상자는 1년간 세부 조사가 유예되고, 징수유예와 납기연장시 납세담보가 완화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번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분위 확신을 위해 '세금을 아는 주간(3~7일)'을 설정하고 '1일 명예세무서장'과 '명예민원봉사실장' 운영, '학생세문예작품 및 UCC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홍보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포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모범납세자 ▲철탐산업훈장 김상열(호반건설 대표) ▲산업

체불임금 법률서비스

3천여명 315억 지원

3월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근로자 6천739명이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액도 약 315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760건(근로자 1천518명)의 소송액 59억 원이던 것이 ▲2006년 1천204건(2천636명) 118억 원 ▲2007년 1천153건(2천585명) 138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가 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임금체불 근로자의 민사소송, 소액심판사건, 강제집행사건, 보전처분 등 일련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창업자금 저리 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최저생계비를 조금 웃도는 월소득을 올리는 신빈곤층인 차상위계층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창업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출금리는 고정 3%, 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 거치 후 5년 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무보증대출은 1천200만원, 보증대출은 2천만원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보해 매실농축음료

'매원 프라임' 출시

보해식품(대표 이사 임현우)이 리뉴얼된 매실농축음료인 '매원 프라임'을 내놓았다.
4일부터 전국에 시판되는 '매원 프라임'은 기존 제품인 '매원'을 성분과 용기·용량면에서 새롭게 리뉴얼한 웰빙음료로, 설탕 대신 기능성 감미료를 사용했고, 합성색소와 합성보존료 등 첨가하지 않았다. 보해식품은 이번 제품출시와 함께 30~40대 주부를 주 고객층으로 삼고 전국을 순회하며 시음행사를 펼치는 등 마케팅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가격은 500ml에 5천원.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황사엔 삼겹살이 최고"...매출 20% ↑

황사로 인해 광주 등 전국 대형 할인마트에서 삼겹살과 마스크 등 관련상품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신세계 이마트에 따르면 기습황사가 찾아온 지난 2~3일 판매된 삼겹살은 주말인 지난 달 22~23일에 비해 20%나 늘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황사 때문에 야외보다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고 싶어진 삼겹살 매출이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 1~2일 전국 매장에서 판매된 삼겹살이 40t(4억원 상당)으로 전주 주말의 2배에 달했다.
올해에도 황사가 기습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3월 한달간 삼겹살 판매량은 작년 동기보다 20% 이상 늘어난 250t에 이를 전망이라고 홈플러스 관계자는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전남대 어린이집 개원

광주은행이 지역사회 기여사업으로 지은 '전남대 어린이집'이 3일 개원했다. 광주는 행이 건축비 12억원을 내고 전남대가 캠퍼스 내 부지를 제공한 이 어린이집은 전남대 교직원 자녀와 광주은행 직원 자녀, 일반시민 자녀들을 원생으로 뽑았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이 지역사회 기여사업으로 지은 '전남대 어린이집'이 3일 개원했다. 광주는 행이 건축비 12억원을 내고 전남대가 캠퍼스 내 부지를 제공한 이 어린이집은 전남대 교직원 자녀와 광주은행 직원 자녀, 일반시민 자녀들을 원생으로 뽑았다.
(광주은행 제공)

금호, 대한통운 인수합병 계약 완료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은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오남수 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강주안 아시아나항공 사장,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과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통운 인수합병(M&A) 투자계약(분계약)을 체결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오는 7월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대한통운은 회사정리절차 종결 신청 등을 거쳐 7년만에 법정관리에

서 벗어나 새로운 주인을 맞게 됐다.
금호아시아나는 대한통운이 글로벌 선도 종합물류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룹사 인소싱 물량전환을 통해 국내 사업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육·해·공 연계를 통한 종합물류사업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또 신규사업과 해외사업 진출로 대한통운의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임직원 개인의 역량개발을 통해 중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기아차 '뉴모닝' 효과... 2월 판매 10만대

기아자동차는 올해 2월에 내수 2만 4천58대, 수출(해외생산분 포함) 7만 4천976대 등 총 9만9천34대를 판매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총 판매실적은 작년 2월에 비해 2.2% 늘어났으며 내수는 12.4% 증가했지만 수출은 0.7% 감소했다. 기아차는 내수시장에서 올해 초 출시된 모닝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뉴모닝'의 인기몰이로 인해 점유율 26.1%를 기록하면서 지난 2006년 7월(27.9%) 이후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올해 경차로 편입된 뉴모닝은 지난 1월 7천848대가 팔린 데 이어 2월에는 8천756대가 판매돼 소나타에 이어 지난달 국내 판매량 2위를 차지했다. 수출의 경우 국내공장 생산량은 4만7천742대로 작년 2월 보다 19.0% 줄었지만 해외공장은 중국 2공장의 세라토·스포티지 판매호조 등에 힘입어 64.3% 늘어난 2만7천234대를 기록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건강100세를 실현하는...
ILDONG 일동제약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비타민 C·E 셀레늄, 아연)보강!

피로는 풀고, 피부건강은 지키고-아로나민 씨플러스

스트레스, 과로, 수면부족, 과음, 과식, 흡연... 체내에 과도물질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각종 질병과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피부 건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비타민C에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제(비타민 C, E, 셀레늄, 아연)가 보강된 아로나민 씨플러스- 하루 두 번, 피로를 풀고 피부건강을 지켜주세요.

아로나민 씨플러스

비타민 C / E / 셀레늄 / 아연 / 아미노산 / 트립토판 / 인삼 / 녹차 / 녹차 / 녹차 / 녹차

www.ildongpharm.com